

# 일반건강진단의

## 적정운영방안

고려의대교수 염 용 태

**목 적 :** 일반건강진단을 취급하는 검진기관의 운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력, 시설, 장비 등으로 사업을 전개할 경우 최소의 소요업무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거는 단위 기관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운영개선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이 있다.

**방 법 :** 최소단위 검진시설을 운영시 투입되는 고정자본의 이자, 감가상각, 인건비, 운영비를 현시점에서 산정하고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입액을 도출하여 최소한의 업무량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위해서 도출한 수식에 대입하여 평가한다.

**배 경 :** 1987년 일반검진 실시 예상인원은 약 2,500,000명으로 추산되며 6월 20일 현재 일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검진기관수는 1,070개소이다.

따라서, 산술적계산에 의하면 1개 검

진기관당 평균 2,336명의 일반건강진단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검진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30세 이상이 40%정도이며, 이들에게서 모두 GOT, GPT를 실시할 경우 전체 수입금은 14,360,000,000원(140억원)으로 검진기관별 평균수입은 14,119,960원(약 1,400만원)으로 의사 1인의 인건비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서 특수검진이나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등의 수입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여타의 수입원은 채용시 건강진단, 정밀검사 및 유소견자 치료라는 별도의 변수가 남아 있다.

물론 일반검진을 실시하여 생길 수 있는 비가시적 이득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이념적 차원이므로 손익상의 직접 변수에 넣을 수 없다.

(charity, PR, ………)

이런 현상 상황에서 가상적이거나 최소투자자와 독자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여 적정운영의 방법을 모색해 봄은 당연한 시도라고 하겠다.

**모델선정 :** 법이 정하는 최소의 인원을 고용하고, 최소의 시설, 장비를 투자하며 재료비 및 수용비를 검진인원에 비례하는 변수로 설정하여 손익 분기점을 산출하고자 한다.

단, 수입원은 배경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일반검진 수가만을 채택하고 여타의 수입은 대책부분에서 건의안건의 자료로 삼는다. 공간의 문제도 제외하였다.

### 손익계산 모형

#### 1. 시설투자

일반진료용 이외에 일반진검의 목적으로 별도 구입하는 경우를 예로하여 규정이 정하는 최소장비를 현시가(가능한 것은 국산품) 기준으로 하였다.

품 목	수 량	금액 (원)
1. 시력관	1	60,000
2. 신장계	1	30,000
3. 체중계	1	35,000
4. 청력검사기	1	2,000,000
5. 현미경	1	1,100,000
6. 백혈구계시관	1	100,000
7. 백혈구백분률 계산기	1	400,000
8. 항온수조	1	300,000
9. 원심분리기	1	770,000
10. 냉장고	1	500,000
11. 자동피펫	1	350,000
12. 단백질결계	1	150,000
13. 광전광도계	1	2,000,000
14. X - 선 촬영기 ( 직 · 간촬 )	1	8,000,000
15. 혈압계		40,000
계		15,835,000

연리 10%, 감가상각 10%, 감안시 연간지출  
부 편입금액은

$$15,835,000 \times 0.1 \times 2 = 3,167,000(\text{원})$$

## 2. 인 건 비

일반신검만을 목적으로 규정에 의한 최소인력을 의사, 임상병리기사, 방사선기사, 간호원으로 제한하여 각각 1명씩 산업보건센터의 실제 임금을 적용하였다. 인건비는 기본급여, 수당, 상여금(기본급의 200%)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것이다.

일반의사	1인	18,000,000
임상병리기사	1인	3,780,000
방사선기사	1인	3,780,000
간호원	1인	3,780,000
퇴직적립금		2,934,000
계		32,274,000

## 3. 재료 및 수용비

재료나 수용비는 검진 실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항목과 X-선 정착액등 최소 소요량의

금액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차량구입 및 유지의 비용은 기존 병의원 차를 이용하고, 임대사용으로 대체하여 최소경비 100,000 원만 책정하였다.

신검실인원에 따르는 지출 :

검진협의회비	신검인원 × 200
간찰판독료	// × 250
개인표 서식	// × 15
X - 선 간찰필름대	// × 150
검사시약	// × 150
간기능검사시약	// × 0.4 × 500
계	신검인원 × 965

• 기타 고정지출 :

현상정착액	16,500
일반소모품비	10,000
통 신 비	10,000
교 통 비	100,000
기 타	100,000
계	236,500

• 지출지부계 :

인 건 비	32,274,000
기타고정지출	236,500
장비감가상각 및 이자	3,167,000
신검인원별 지출	신검인원 × 965
총 계	35,677,500 + 신검인원 × 965

• 수입지부 :

일반신검 수입만을 계산하며 30세이상 간기능검사(GOT, GPT)인원을 전체의 40%, 수가는 7,340 원으로 하며 30세미만은 전체의 60%, 수가는 4,680 원으로 산정하면

30세미만 일반신검	신검인원 × 0.6 × 4,680
30세이상 일반신검	신검인원 × 0.4 × 7,340
계	신검인원 × 5,744

여기서 수입지부총계와 지출지부총계의 등식을 만들면 적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신검대상인원이 계산된다. 이 인원을 X라고 하면 다음

의 등식을 얻는다.

$$5,744 X = 965 X + 35,677,500$$
$$X = 7,465 (\text{약 } 7,500 \text{명})$$

**결 론 :** 7,500 명 이하에서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며, 7,500 명 이상일 경우 건물사 용료 제외하고, 추가 1인당 4,779 원 씩 이익을 보게된다 (손익분기점).

1일 300 명씩 검진할 경우 7,500 명 검진은 신검실시에만 25일분에 해당한다.

**건 의 :** 재무구조를 보면 극도의 노동집약사업 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업무량을 보면 수개월분에 불과하여 의사인력을 낭비하는 업종이며 경영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업무량 (검진수)에 의존한다. 따라서 소규모 검진기관의 적정운영을 위한 개선점은 수요를 증대시키거나 인력활용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일반신검 실시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2,500,000(86년) : 440만명에 접근시킨다.
- (2)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동부협조).
- (3) 검진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 (4) 또는 의사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 즉 공중보건의 활용등 검토해볼만하다.
- (5) 소규모 신검기관의 수를 줄이거나 통폐합 (법인체 구성등) 하고 지역별로 적정수만 제한 허가한다. 필요시 분원을 설치운영 (일반신검 전문기관운영).
- (6) 인력 및 시설을 공동 사용한다. 즉 검진팀 구성, (X-ray, 검사실 포함) 하여 검진기관과의 예약에 따른 효율적운영연구.
- (7)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 보건진단,보건관리대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를 유도하거나 산업보건전문기관에서 점차 흡수하도록 한다.

## 일반건강진단결과의 효과적 활용방안

인제의대학교수 배 기 택

사업장의 보건관리는 그 업적이 직접적으로 산출되지 않아 생산과 영업에 대해서 소극적 역할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일부 기업주와 담당관리 책임자의 사고방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맞고 있는 보건담당자의 활동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공장전체의 노동력을 높이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의 건강과 능률을 유지하며 또 증진시키게 되어 이것이 곧 생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된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건관리업무는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이는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의 직제상의 문제 즉 지위, 권한, 근무제등의 사정에 의하여 잘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다.

경영면에서 볼 때 효과적인 보건관리로 개개인의 심신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작업이 요구하는 것과 적절히 결부시키므로서 건강과 능률을 최고로 유지시키는데 있다. 또한 산업장내의 환경조건과 근로자 노동조건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노동조건의 합리화는 물론 기술부분과 제휴 내지는 협동으로 근로자의 동작에 무리가 없고 손실이 없는 노동으로서 효율이 가장 높고 안전하게 건강한 노동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곧 직접 생산성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